

이성교제중 발생한 폭력

A Study on the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군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영숙

Dept. of Home Management, Kunsan National Univ.
Prof. : Yeong-Sug Yi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features of dating violence and to examine the perceptions of why dating violence occurred and the influence of violence on their relationships. This study relied on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order to approach their subjective experienc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Respondents had been involved in various forms of violence, including insulting, hitting, slapping in the face, and kicking.
Dating violence occurred primarily on weekends and in private and public settings such as the residence of one of the partners and restaurant. It was likely to occur repeatedly and in serious relationships. There were sex differences in prevalence of dating violence. Male partner was likely to be a initiator and do severe acts.
- 2) The majority of respondents had a tendency to label themselves as victims rather than as initiators of violence. Jealousy was perceived as the primary causal factor leading to dating violence.
- 3) Both offenders and victims reported emotional trauma like anger and shame. Their relationships has worsened because of physical violence, but didn't terminate.

I. 서론

청년기에 남녀간의 교제를 통하여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은 개인의 건강한 발달에 중

요하다. 특히 개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자유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결혼하기 전에 이성교제로 배우자 선택을 하는 것은 결혼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이 되었다. 요즘엔 타인의 중매로 이루어지는

결혼도 당사자들이 결혼전에 전혀 만나보지 못하는 과거와 같은 중매혼에서 탈피하여 결혼 전에 상당 기간동안 교제를 한 후 결혼하게되는 절충혼으로 변화하게되어 결혼전의 이성교제는 이제 결혼을 위한 필수적인 한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이성교제하는 동안 교제하는 남녀는 서로의 가치관을 비교해보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평가해보는 등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낭만이나 친밀감과 같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갈등이나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면도 함께 존재한다. 결혼초기에 발생하는 이혼과 같은 많은 부부관계의 문제들이 혼전단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점을 고려해본다면 (Cate & Lloyd, 1992) 교제시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 후 부부간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전 교제단계에서의 부정적인 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전 교제관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교제라는 의미가 주는 낭만적인 특성 때문에 긍정적인 면만 확대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은 간과한 점이 없지 않다.

이성교제기간 동안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은 최근여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이성교제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신체적 폭력이 일어남을 밝힌 연구(Makepece, 1981)는 이 분야의 최초의 것이다. 이후 결혼전 교제할 때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연구는 부부간의 폭력 등 가정 폭력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되어졌다. 따라서 이성교제하는 남녀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발생율, 폭력의 유형, 폭력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주는 변인 등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서와 같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 결과 이성교제시 발생하는 폭력은 결혼후 부부간에 발생하는 폭력과 유사한 것임을 밝힌 연구와(Flynn, 1987; Starr, 1979) 부부간에 발생한 폭력에 관한 설명이 혼전 이성교제의 경우에는 적합치 못하다는 주장(DeMaris, 1987)으로 나뉘어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성교제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우리의 경우는 우선 이에 관한 양상부터 살펴 보아야 이성교제시의 폭력을 부부폭력과 연관지어

서 연구할 수 있는지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주제는 그 내용이 극히 사적인 것이므로 심층면접을 통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 이성교제시 발생한 폭력의 양상을 유형별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고 아울러 그러한 폭력이 발생하게된 원인을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폭력은 그들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있는지를 밝혀 결혼전 이성교제시의 폭력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교제중인 남녀가 경험한 폭력의 전반적인 양상은 어떠한가?
- 2) 교제중인 남녀는 폭력의 원인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 3) 교제중에 발생한 폭력은 그들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교제중 폭력의 개념

교제기간에 발생한 폭력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교제기간과 폭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표현과 정의를 약간씩 달리 하고 있다. Puig(1984), Marshall & Rose(1988)는 구혼기 학대(courtship abus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제하는 상대방에게 가하는 신체적 공격행위라고 정의하였고, Carlson(1987)은 교제 폭력(dating violence)이란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낭만적 사랑을 하는 남녀간의 폭력을 의미한다고 하며 교제기간중의 폭력을 연구했다. 또한 Thompson(1986)은 구혼기 폭력(courtship violence)이라는 용어를 교제하는 상대방에 대한 신체적이나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위협적인 행위라고 정의하였고, 교제하는 관계에서 남녀사이의 신체적 공격을 Riggs & O'Leary(1989)는 구혼기 공격(courtship aggression), Stets(1992)는 교제 공격(dating aggression)이라고 정의하면서 교제기간 중의 폭력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교제기간에 대해서는 교제 또는 구혼

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고 폭력에 대해서도 폭력 외에 공격, 학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본고에서는 결혼한 경험이 없는 남녀가 결혼전 교제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한 모든 언어적 행위와 신체적 행위를 이성교제중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연구하고자 한다.

2. 교제중의 폭력

(1) 폭력의 발생

교제하고 있는 미혼 남녀가 경험한 폭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Straus(1979)가 개발한 CTS (Conflict Tactics Scale)를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교제기간중 발생한 폭력의 비율을 최저 9%에서 최고 65%까지 다양하게 밝히고 있다(Sugarman & Hotaling, 1989). 발생률의 범위가 이렇게 폭이 넓은 것처럼 남녀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의 양상도 다양하여 이 척도에 표현되어 있는 행위 외에도 수많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방법을 통하여 지금까지 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행위도 함께 파악하여 그 전반적 양상을 보다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교제중 폭력은 주로 주말에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교제하는 둘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 이들 부모의 거주지, 차속, 야외 등이다(Makepeace, 1981; Roscoe & Benaske 1985). 이러한 때와 장소가 특별히 선호되는 것은 둘만이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제 삼자의 개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교제중 폭력 발생에 미치는 성별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없다. 먼저 폭력에 가담하는데 있어서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밝힌 연구를 보면 Stets(1989)는 여성만이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남성만이 그러한 경우보다 현저히 많다고 하며 폭력의 상호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남성과 여성이 폭력에 참여하는 것은 동일하며 다만 참여하는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Bernard & Bernard, 1983;

Sigelman 등, 1984). 이렇게 성에 따라 폭력에 참여하는데 대한 이견은 그들이 사용한 폭력의 정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교제시 심한 폭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심한 폭력을 사용한다는 결과도 있고 여성이 더 심한 폭력을 사용한다는 그 반대의 결과도 있으며 또 전혀 성차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Sugarman & Hotaling, 1989).

일반적으로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단계에서보다 언어적 공격이나 신체적 폭력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Makepeace, 1981, 1989; Roscoe & Benaske, 1985; Billingham, 1987). 그 이유는 교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면 교제하는 관계가 가지는 특성이 부부관계의 그것과 같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있다(Laner & Thompson, 1982).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장시 부모의 폭력을 본 경험과는 관계가 깊다. 즉 성장할 때 부모가 서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거나 어느 한쪽 부모가 상대방을 가해하는 것을 본 경험이 교제시 폭력에 참여하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Forsstrom-Cohen & Rosenbaum, 1985; Bernard & Bernard, 1983; Laner & Thompson, 1982). 특히 남성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크다고 한다(Gwartney-Gibbs 등, 1987). 특히 DeMaris(1987)는 어머니의 공격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때리는 것을 본 남성은 상대방으로부터의 폭력을 잘 참아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던 자가 성장한 후 더 폭력적이 된다고 한다(Gelles, 1980; Marshall & Rose, 1988).

(2) 폭력 발생의 원인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밝혔듯이 교제 중 폭력에 남녀가 가담한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교제시 폭력을 당한 사람이 가해자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 폭력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눈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힘들다. 따라서 처음에 누가 폭력을 사용하였는가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해 대부분이 자신을 먼저 폭력을 행한 사람으로 응답하지 않고 대신 상대방이

먼저 가해했다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향이이다 (Sugarman & Hotaling, 1989). 즉 교제중인 남녀 모두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호간에 폭력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경향이였다.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질투심과 통제하지 못한 분노가 자주 지적되었고(Makepeace, 1981; Roscoe & Benaske, 1985). 음주에 관한 문제, 성에 관한 문제도 흔히 지적되는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 조사는 그것이 가해자 문제때문인지 또는 피해자 문제때문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조사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원인규명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인을 밝혀야만 해결할 수 있는 폭력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등 제반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지 못하고 있다.

(3) 폭력의 영향

교제중의 폭력은 부부간 또는 부모자녀간에 발생하는 폭력에서 보고되는 것과 같은 신체적으로 위험상태에 이를 극심한 정도의 폭력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제중의 폭력은 그들 각자의 정서적인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그것이 또한 교제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폭력에 가담한 사람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정서적인 상처를 입는다고 하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3배나 강하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는다(Makepeace, 1986). 흔히 가해자는 슬픔을 느끼며 피해자는 분노, 공포, 그리고 놀라움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데(Henton 등, 1983) 이러한 정서적 반응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한다. 그러나 교제중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상담하는 것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없었다. 다만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말을 하는데 그 대상이 대부분 친구였고 때때로 가족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폭력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그러하였다(Stets & Pirog-Good, 1987).

폭력을 경험한 이후 교제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폭력을 경험한 후 교제관계를 끝마치

게 되는 비율은 12-70%로 다양하였다(Sugarman & Hotaling, 1989). 그러나 교제중 폭력을 경험한 횟수를 평균 9.6회라고 밝힌 연구(Roscoe & Benaske, 1985)에서 보듯이 일단 폭력이 발생한 후에도 계속 교제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그들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Cate 등(1982)도 학대하는 상대와 계속 교제하는 사람이 53%이고 37%는 그 관계가 더 발전되었다고 하는 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첫 번째 데이트에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그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한다(Makepeace, 1989).

III. 연구방법

이성교제중에 발생한 폭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교제하는 사람들은 교제기간이 적어도 두달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Stets & Pirog, 1987) 이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결혼한 경험여부에 따라서 교제의 양상이 달라지므로 전혀 결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중 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폭력에 가담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을 임의로 선택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알고 있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얻어 알게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997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개별 면접하였다. 폭력의 양상을 알기 위해 개방형의 질문을 사용하여 약 세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에 걸쳐 직접 면담하면서 녹음하였다. 폭력의 발생과 관련된 양상, 폭력 발생의 원인, 그리고 폭력의 영향등 세영역으로 이루어진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것을 녹음한 후 문자화하여 분석하였는데 되도록 응답자의 대답을 답한 그대로 문자화하였다. 폭력에 대한 질문은 경험했던 폭력중 최근의 큰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의 내용은 극히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알아보려는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성친구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친숙해진 후 면접에 들어가 비교적 쉽게 면접이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교제중의 폭력양상

교제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교제중 발생하는 폭력을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 두 가지로 나누었다.

(1) 언어적 폭력

이 유형으로 분류된 행위는 욕을 하고 상스러운

표현을 하는 등 상대방이 싫어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 언어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였다. 또한 표현된 언어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말을 비꼬아서 하는 등 상대방의 기분을 심히 상하게 하기 위해 한 말도 언어적 폭력으로 분류하였다.

“교제 3개월쯤 되는 때였죠. 커피숍에서 약속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서 물어보니 끝까지 발뺌을 하는 거예요. 참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욕을 했죠. xx과 같은 아주 심한 욕이죠. 물론 소리도 질렀죠. 다른 사람이 다 쳐다 볼 정도였어요.”(사례 9)

“토요일날 동아리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여 도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사 례	폭력유형	성	연 령	종 교	부모경제수준	교제기간
1	신체적폭력	남 상대방	22 22	무 부	상 상	1년
2	"	남 상대방	23 20	기독교 기독교	하 상	1년 1개월
3	"	남 상대방	23 24	무 부	중 상	3년
4	"	남 상대방	22 21	무 부	중 상	2년
5	"	여 상대방	21 21	기독교 무	중 중	2년 4개월
6	"	여 상대방	20 23	기독교 기독교	중 중	1년
7	"	여 상대방	20 21	기독교 불 교	중 중	2년
8	" (피해)	여 상대방	22 28	기독교 무	중 중	3년 2개월
9	언어적폭력	남 상대방	20 20	무 기독교	중 중	1년
10	" (주로피해)	남 상대방	21 20	불 교 기독교	하 중	2년
11	"	여 상대방	21 21	천주교 무	중 중	1년 6개월
12	"	여 상대방	22 25	무 불 교	중 중	1년
13	"	여 상대방	21 22	무 부	중 상	2년

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왔는데 오늘은 열심히 공부만 했다고 하니 공부도 효율적으로 해야 잘한 거라며 놀려요. 자존심이 꼭 상했어요. 그래서 보기 싫다고 가버리라고 해버렸어요. 헤어지자고도 했어요. 개xx라고 하면서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사례 11)

“야 라고 불려요. 우린 그렇게 안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해라’를 해요. 내가 그래도 (나이가) 위인데”(사례 10)

이러한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평소에 언어적 습관이 잘못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제하고 있는 상대방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대한다기보다는 모든 대인 관계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듯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 등 마음에 들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 관계없이 좋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폭력의 정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여 자신이 사용한 언어적 폭력은 잘못된 습관일 뿐이라며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치고 배고 하는 것이 폭력이죠. 교제하는데 말일 폭력이 있다면 요즘 세상에 만날 여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사례 9)

“폭력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연인, 남자친구랑 여자친구사이에서 폭력이란 말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요. 언어 폭력요? 폭력이라고 하면 그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사례 12)

“난 말을 막하는 편이에요. 누구한테나 나 하고 싶은 대로 다해야 살아요. 다 받아주어서 그런지.”(사례 13)

언어적 폭력 행위는 교제중인 남성과 여성이 만날 때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행위는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도 못하는 비이성적인 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 주로 주말 오후가 주중이나 오전 중보다 폭력발생시간으로 자주 보고되는 것은 남녀가 만나는 때가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이다. 만나는 장소로 이용되는 장소는 자취집, 차속과 같은 한적한 곳뿐 아니라 교정, 음식점 등 공공장소 등도 자주 이용되는 곳이어서 이런 장소에서 폭력이 많이 보고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

다.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번 상대방에게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하기만 하면 계속 사용하는 반복성이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 이러한 폭력에 가담했던 때와는 달리 이미 그러한 언어적 습관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익숙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언어적 폭력을 친밀함의 한 표현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반복해서 폭력을 사용한다는 사실과 계속해서 그러한 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서 그들 관계에서 언어적 폭력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자주 그랬어요. 이제 그 사람도 그런 연가 보다고 여기니까요. 우린 앞으로 결혼해도 그것이 별로 문제 될까라고 생각은 안해요.”(사례 13)

“맨 처음엔 혼자말로 욕같은 것만 해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좀 심했다 싶어도 친한 사이라 그냥 넘어가요. 개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지.”(사례 9)

“요즘 세상에 욕 안하는 사람 있어요? 라고 받아 줘요. 그렇게 안한다면 사랑한다고 하는 사이가 아니죠.”(사례 10)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아동기 때의 폭력과 관련된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가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여부와 부모에게서 폭력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모두 부모에게서 체벌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 상호간의 폭력을 본 경험은 부모상호간의 폭력을 본 사례(사례 11), 부가 모에게 폭력을 가한 사례(사례 13), 이러한 폭력을 본 경험이 없는 사례(사례 9, 10, 12) 등 따라서 부모의 폭력을 본 경험과 교제중 폭력이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주지는 않았다.

(2) 신체적 폭력

이 유형은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주로 손이나 다른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가 보고되었다. 그 중에서도 뺨

을 때리는 행위는 가장 많이 보고된 행위였다. 교제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인지 부부폭력 등 기타 가정폭력에서 보고되는 정도의 극심한 행위는 없었다. 부부관계와는 달리 교제하는 관계는 구속성이 적어서 극심한 행위가 발생해도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술직히 여자가 남자 말을 안 들으면 화나죠. 그래서 고쳐주려고 좀 손을 쓰는 때가 있어요.”(사례 4)

“여자친구가 나이가 많은데 나이 적은 남자랑은 못 사귀겠다고 말했을 때 서로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못 만나겠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본능적이란 말이 좀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드라고요. 손찌검 정도죠.”(사례 3)

“친구 자취 집에서 라면을 먹는데 먹는 모습을 보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때 남자 친구가 화가 났나봐요. 젓가락을 막 던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제가 있는데 젓가락을 집어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 버렸어요. 나가고 있는데 따라 나와서 그때 뺨 몇 번 때린 적이 있어요.”(사례 7)

이러한 신체적 폭력에 대한 보고는 상대방을 가해한 경우보다 상대방에게서 피해를 받은 경우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또한 교제하는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경우의 가해자도 보다 노골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하여 계속 교제가 지속되는 경우의 보고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점은 폭력에 가해자로 참여한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의식한다는 연구결과(Sugarman & Hotaling, 1989)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자신이 폭력에 가담은 했지만 폭력을 좋지 못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생각에서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로서 가담했다고 보고하며 또한 피해 당한 상황을 보고할 때도 가해자로서 그 상황을 보고할 때 보다 조사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을 것으로 여겨 쉽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귀가시간이 늦다 또는 말대답한다고 싸우다가

꼭 때려요. 화가 나면 저도 말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불건을 따구 나에게 던졌어요. 맞아서 피가 난적도 있어요.”(사례 8)

“처음엔 그냥 말도 안하고 참다가 나중에 들어 있을 때 많이 싸웠죠. 세계는 안 때렸고 그냥 따귀 한 대 때렸어요. 술자리에서 그런 행동 보이고 그러니까 화나서 데리고 나왔죠. 질질 끌고 나왔어요. 그 뒤에 좀 심하게 했다 싶어요. 상처도 나고 코피도 나고 그랬어요.”(사례 1)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성차를 나타냈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성을 가해하는 경우는 대부분 남성이 먼저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행해진 것이었으나 남성의 신체적 폭력행위는 여성의 폭력행위에 대한 대응행위가 아니고 남성 자신이 먼저 사용한 것이었고 그 강도도 여성이 가해한 경우보다 강했다. 그러나 남성은 자신이 먼저 한 폭력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한 책임을 여성의 잘못으로 돌렸다.

“손으로 따귀를 때리드라고요. 그래서 취해서... 내 생일인데 먼저 알아주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기분이 나빠서 손으로 따귀를 때렸어요.”(사례 5)

“그녀가 나 볼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요. 나 에겐 거짓말했어요. 그걸 내가 감으로 느껴서 물어보면 들킨지 알고 그때야 얘기해요. 이런 것을 참았다가 한번 터지면 그녀가 죽어나죠. 떠밀고 때렸어요. 여기저기 안가리고 발로 찼죠. 맞아도 싸요.”(사례 2)

신체적 폭력의 또하나의 특성은 언어적 폭력과 같은 다른 유형의 폭력과 병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적 폭력은 언어적 폭력으로 이미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만이 쉽게 감행할 수 있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신체적 폭력만 따로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중 그만 마셔라고 말을 했는데 그날은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았죠. 근데 2차 가려고 장소 옮기려 하어서 또 술 더 많이 마시면 나 그냥 가버린다고 그랬더니요,

화를 막 내면서 그때 친구들이 같이 있었는데 손으로 나를 떠밀었어요.”(사례 5)

“자취 집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 친구한테 점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왜 그러냐고 막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냥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제 친구의 책이랑 잡지를 밖에 던졌던 게 기억나네요.”(사례 7)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폭력 행위의 반복성 등은 언어적 폭력의 경우와 같이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표현되는 방식만 다를 뿐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제가 깊어진 관계에서 심한 폭력이 보고된 것을 보면 이성친구와의 교제가 심각한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폭력의 정도도 심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관계에서 자주 폭력이 발생한다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유사하다(Makepeace, 1981, 89; Roscoe & Benaske, 1985; Billingham, 1987). 그런데 신체적 폭력이 장소에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제 삼자의 개입이 어려운 사적인 장소에서만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Makepeace, 1981; Roscoe & Benaske, 1985)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번 그런 뒤 또 그러더라고요. 한번 손대기 시작하니깐 나중에는 술 안 먹어도 때리더라고요.”(사례 8)

“자주 그랬어요. 우리 싸우는 패턴이 바뀌었죠. 해결이 안되니까. 또 그래요.”(사례 3)

이렇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폭력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폭력이 재발되는 때는 교제를 중단할 각오까지 하였으며 자기가 사용한 폭력도 상대방에 대한 반응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된 것이었다고 보고함으로써 폭력에 대해 허용하는 태도가 신체적 폭력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폭력은 당연하진 않지만 때에 따라서 쓸 수 있

다고 생각해요.”(사례 1)

“혼신이나 후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되지요. 결혼도 안했는데 그렇게 당한 것이 이해가 안 되요. 제가 한 것도 지도 용서 못해요. 저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관계를 끊을꺼예요.”(사례 5)

교제중의 신체적 폭력의 발생과 성장 시에 폭력을 경험한 것과 관계가 있었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동기에 부모 상호간의 폭력 또는 어느 한쪽 부모가 상대방에게 가하는 폭력을 보았거나(사례 7) 자신이 부모에게서 체벌 받았던 경험(사례 2, 3, 5) 중 하나 또는 둘 다(사례 1, 4, 6, 8)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었다(Forsstrom-Cohen & Rosenbaum, 1985; Bernard & Bernard, 1983). 그러나 이런 경험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그들이 이후 폭력에 가담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였다.

“아버지 영향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불건 던지고 어머니를 때리고 하는 걸 흔히 봤어요. 때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다 싫었죠.”(사례 1)

“우리 부모님요? 옛날 사람은 다 때려서 키웠잖아요? 제 키 개구쟁이이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도 맞았어요. 어렸을 때 죽게 맞고 내쫓긴 적도 있어요.”(사례 3)

3. 폭력에 대한 원인인자

가해자로서 폭력 경험을 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보고하면서 반드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대응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자신이 폭력행위로 가해하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된 것은 상대방이 먼저 폭력으로 가해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거나 또는 상대방이 폭력은 아닐지라도 다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의 폭력이 유발되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신체적 폭력의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났다.

“화가 날 때 약간 충격주기 위해 소리치곤 적이 있어요. 제 키 뺨매를 피는 데요.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끊으라고 해요. 그러니 조용히 할 수 있어요?”
(사례 13)

“사람인 경우에는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인 경우에 담배 피우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차원이면 곤란하죠. 그런데 그게 발각된 적이 있어요. 버릇을 고쳐줄려고 때렸죠.”(사례 3)

그러면 폭력을 사용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질투심, 가치관의 차이와 같은 교제하는 도중 두사람 사이에서 생긴 것과, 성격, 음주습관과 같은 폭력을 사용한 자나 그 상대방이 갈등을 일으킬 문제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것 등 그 원인은 다양하였는데 개인적인 것이 원인이 된 경우도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되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교제하는 관계에서 폭력을 일으키는 것은 개인적인 특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관계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폭력을 야기시키므로 두 사람 사이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한 원인으로 자신의 성격, 질투심, 분노 등을 지적하였지만 이러한 원인이 생기게 된 원인은 상대방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었다. 심지어는 사례 11의 경우처럼 자신의 성격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성격에 맞추지 못하는 상대방 때문에 폭력이 발생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이 다양한 원인들은 서로 다른 남녀 커플 사이에서만 다양한 것이 아니고 한 커플 내에서도 그러하였다. 즉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이 서로 다를 경우도 있으므로 남녀 한 커플의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이 연속적인 시간상으로 볼 때 다양하였다. 또한 폭력이 한번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직접적 원인 외에도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다른 원인도 있어서 원인은 시간의 한 시점에서 볼 때도 여러 가지였다. 이런 간접적 원인은 본인이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교제하는 관계에 있어서 보다 밀도 있는 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 원인 중에서도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질투심은 여러 사례에서 지적되어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빈번한 원인중의 하나가

질투심이라고 한 선행연구(Makepeace, 1981, 86; Roscoe & Benaske, 1985; 김예정 & 김득성, 1993)와 일치했다.

“만 남자한테 술도 따라주고 그게 내 친한 친구인데 안주 같은 것도 집어주고 그러니 그런 행동보고 솔직히 화 안나요?”(사례 1)

“사소한 일인데 제가 핸드폰이 있어서 만나는 도중 다른데서 전화가 오면 시끄러우니까 다른 곳 화상실 같은 곳으로 가서 받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전화에 대해 거짓말한다고, 사실은 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부서우니까 그냥 거짓말로 얼마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을 대요.”(사례 6)

“싸우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가끔 제 성격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조금만 맘에 안 들면 집에 가버리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 성격에 맞춰주면 되는데...”(사례 11)

“친구들하고 술마시러 갔는데 항상 그런 애지만 술마시면 남자는 친구하고만 있으려고하고 나는 두번째, 외톨이라는 느낌 많이 받아요.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항상 나를 챙겨주길 원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술을 안 마시면 괜찮은데, 항상 많이 마시는 편이니까.”(사례 5)

“솔직히 저도 제마음을 잘 몰라요. 무얼 원하는지, 결혼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성관계를) 요구하는 게 걸려요. 사랑하는 건 같은데, 화나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사례11)

4. 폭력의 영향

교제중 폭력이 발생한 이후 그들의 관계에 미치는 폭력의 영향을 폭력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가지는 정서적 반응과 교제 관계의 지속성 여부로 살펴 보았다.

먼저 폭력이 발생된 후의 정서적 반응을 알아보았는데 모든 경험자가 그 가담 역할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 당한 경험이 가해한 경험보다 정서적인 상처를 심하게 주었고 가해한 경험에서도 먼저 가해한 경우의 정서적 반응과 피해 당한 후 대응행위로 가해한 경우의 정서적 반응이 서로 달랐다. 피해자로서의 경

힘만 한 사람은(사례 8) 정서적인 상처가 특히 심했다.

“내가 자신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것도 같고 그래요.”(사례 4)

“치욕감이 들죠. 그 당시는 죽고 싶지요. 좀 지나면 내 팔자다 싶어요.”(사례 8)

“나는 절대 말을 안해요. 헤어질까라는 생각도 해요. 나중에 그 생각만 해도 정이 멀어지는 느낌이 들죠.”(사례 12)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도 주위에 도움을 청할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주로 선배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의 도움을 요청하며 그 조언에 따라 행동을 하기도 하나 가족에게는 얘기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외에 도움을 구할 곳은 알고있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 중에서 교제 중 폭력을 경험해도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얘기하는 대상에서 가족을 제외시키고 주로 친구와 선배에게 얘기한다고하는 점은 친구와 가족에게 얘기한다는 외국의 연구결과(Stets & Pirog-Good, 1987)와는 약간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제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적인 서구사회와는 달리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성교제에 대해서 가족에게 터놓고 상의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지 못하여 나온 결과로 본다.

“싸우고 난 뒤 ‘선배님들은 이런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서 친구나 선배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는 편이에요. 부모님께서는 얘기 안하는 편이에요. 이해도 못하고...”(사례 2)

“친구나 선배들에게 내 생각이 틀렸다고 물어봐서 틀렸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연락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연락 안합니다.”(사례 13)

“죽고싶을 때 갈 곳이 있었으면 해요. 실컷 울고 그럴곳요. 저는 혼자 그치 사이죠. 무슨 무슨 전화가 있다고 해도 잘 몰라요. 또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고”(사례 8)

폭력이 발생한 후에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

되는지를 살펴보니 폭력으로 인해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된 것처럼 그들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관계가 소원해지게 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언어적 폭력의 경우보다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 후에 심하였다. 한편 폭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교제관계는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폭력이 교제관계의 지속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듯 했다. 그래서 신체적 폭력 후에도 교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상대방이 참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폭력인 경우에는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교제하는 남녀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을 심각한 폭력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우발적인 실수라든지 친밀함 또는 남성다움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관계에 약간의 일시적인 부정적 영향만 미칠 뿐 관계를 단절시키는 등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더구나 언어적 폭력은 그것을 경험한 후 부정적 느낌을 가지게하였지만 그들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다. 이것은 언어적 폭력을 폭력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의 언어습관으로 해석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겉으로는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나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요.”(사례 3)

“남사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속이 편하죠. 제가 먼저 다가가서 다시는 말대답 안하겠다고 사과하면 예전의 관계로 돌아서곤 해요.”(사례 8)

“한번 싸울 때마다 헤어지는 일까지 생각해요. 나중에 연락이 와도 선뜻 응하지 않지요. 한참 후에야 친처럼 되요.”(사례 6)

“멀어졌죠. 성격, 의견차이도 있고 후회되지요. 때론 건 잘못된 거니까. 결국 끝났어요.”(사례 1)

“그런 애라고 생각하나봐요. 사기도 같이 하는데 말쑥 막한다고 교제를 끊으면 말이 안되죠”(사례 13)

폭력발생이 정서적인 변화 그들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폭력이후에 가해자가 취한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여자에게 쥐어살면 안된다는 생각이 모양이에요. 더구나 결혼까지 할 여자는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때리고도 먼저 나가버려요.”(사례 8)

“여자친구가 안 그러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놓고 먼저 일은 그냥 모르는 척 해주기로 하고 그냥 두고 보기로 한 거죠.”(사례 4)

이와 같이 가해자가 폭력을 사용한 후에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거나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폭력후의 느낌은 더욱 부정적이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폭력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행동 변화를 약속하면 그 느낌은 다소 완화되어 있었다.

폭력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폭력양상만큼이나 다양했다. 대부분이 폭력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신체적 폭력의 경우는 언어적 폭력의 경우보다 더 그러하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그러했다. 남성은 여성보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을 더 보였는데 여성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면 오히려 못마땅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남성은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다고 보다는 남성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태도를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폭력에 대해서도 남성은 폭력을 사용해도 되지만 여성이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남성의 폭력에 여성이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여성의 대응행동에 대한 남성의 태도 또한 문제이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불평등한 견해는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기 때문이다.

“어이없어하는 표정이에요. 요즘 세상에 욕하는 남자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사례 9)

“저도 술먹으면 이판 사판이에요. 같이 때려요. 그래도 힘이 세니까 못해봐요.”(사례 6)

“풀어주다가 계속 화내면 남자가 이 정도 했으면 좀 고쳐야지 하면서 화내고 가버려요.”(사례 12)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때린 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려고 해요.”(사례 3)

“황당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안되겠는지 나보다 더하네요. 서로 차고 받은 격이죠.”(사례7)

V. 결론 및 제언

자유혼이 보편화되면서 혼전 이성교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되어있지만 그 동안 이성교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제중인 남녀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양상을 파악하여 이성교제의 부정적인 한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성교제중 발생한 폭력에 대한 기초자료로 삼음과 동시에 부부간의 폭력과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성교제하는 동안 발생하는 폭력은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른 가정폭력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극심한 행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폭력행위는 교제하는 사람이 만나는 때와 장소라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발생하였고 일단 한번 발생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향이였다. 폭력발생에서 성차를 찾아 볼 수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남성이 먼저 가해하고 그 정도도 강했으며 여성은 대응하는 행위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한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폭력이 발생한 원인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폭력에 가담한 남녀 모두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로 인식하려고 하여 상대방에게 그 원인을 돌리려고 하였다. 이러한 폭력의 원인은 다양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질투심과 같이 둘 사이에서 생긴 문제가 보다 빈번히 지적되었다. 폭력이 일어났다고해도 그들 관계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폭력이 관계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들 관계를 소원하게하는 영향력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제하는 관계에서도 폭력이 발생된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폭력은 남녀 상호간,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간에 서로 관련성이 크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것은 폭력이라는 것이 주로 남성의 신체적 폭력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시각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교제중 갈등이 발생하면 그 해결과정에서 언어적 폭력이 발생하고 그것이 신체적 폭력으로 진행되며, 또한 교제중 폭력이 남녀상호간에 유발됨을 생각할 때 교제하는 관계에서 폭력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녀간의 갈등을 잘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교제중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결혼전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교제기간은 남녀가 의사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대상자중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폭력을 겪은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와 같은 이성적인 방법으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여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교제시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결혼전 교제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또한 폭력에 가담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청할 전문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없음을 알았다. 따라서 더 이상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폭력이 발생하기전 갈등을 겪는 남녀와 아울러 교제시 폭력을 경험한 사람을 위하여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교제시 폭력발생과 관련된 변인 중에 부부간의 폭력과 관련된 변인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교제시 폭력과 부부간 폭력을 연계시킨다면 교제시의 폭력이 부부폭력과 맺고있는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조사가 가능한 미혼남녀 대화생만을 임의 선정하였고 그들의 회고에만 의존한 결과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참고문헌

- 1) 김예정, 김득성,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 표출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1-2, 1993, 127-140.
- 2) Bernard, NL, Bernard, JL, Violent intimacy: The family as a model for love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32, 1983, 283-286.
- 3) Billingham, RE, Courtship violence: The patterns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cross seven levels of emotional commitment, Family Relations 36, 1987, 283-289.
- 4) Carlson, B, Dating violence: A research review and comparison with spouse abuse, Social Casework 68(1), 1987, 16-23.
- 5) Cate, CA, Henton, JM, Koval, J, Christopher, FS and Lloyd, S,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 1982, 79 -90.
- 6) DeMaris, A, The efficacy of a spouse abuse model in accounting for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8, 1987, 291-305.
- 7) Flynn, CP, Relationship violence: A model for family professional, Family Relations 36, 1987, 295-300.
- 8) Foo, L and Margolin, G,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1995, 351-377.
- 9) Forsstrom-Cohen, B and Rosenbaum, A, The effects of parental marital violence on young adult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1985, 467-472.
- 10) Gelles, RJ, Violence in the family: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1980, 873-885.
- 11) Gwartney-Gibbs, PA, Stockard, J, Bohmer, S, Learning courtship aggression: The influence of parents, peers and personal experiences, Family Relations 36, 1987, 276 - 282.
- 12) Henton, J, Cate, R, Koval, J, Lloyd, S and

- Christopher, S,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4, 1983, 467-482.
- 13) Laner, MR and Thompson, J, Abuse and aggression in courting couples, *Deviant Behavior* 3, 1982, 229-44.
- 14) Makepeace, JM,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1981, 97-102.
- 15) _____, Dating, living together, and courtship violence, In Pirog-Good and Stets(e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94-107, 1989, Praeger Pub.
- 16) Marshall, LL & Rose, P, Family of origin and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1988, 414-418.
- 17) Puig, A, Predomestic strife: A growing college counseling concer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 1984, 268-69.
- 18) Riggs, DS and O'Leary, KD, A theoretic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In Pirog-Good and Stets(e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1989, Praeger Pub.
- 19) Roscoe, B and Benaske, N, Courtship violence experienced by abused wives: Similarities in patterns of abuse, *Family Relations* 34-3, 1985, 419-424.
- 20) Sigelman, CK, Berry, CJ and Wiles, KA,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5 · 6, 1984, 530-48.
- 21) Starr, B, Clarke, CB, Goetz, KM and O'Malia, L, Psychosocial aspects of wife- battering, *Social Casework* 60, 1979, 479-87.
- 22) Stets, JE and Pirog-Good, MA,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3), 1987, 237-46.
- 23) _____, Patterns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for men and women in dating relationships: A descriptive analysis, In Pirog-Good and Stets(e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1989, Praeger Pub.
- 24) _____, Interactive processes in dating aggression: A natio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1992, 165-77.
- 25) Straus, MA,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1979, 75-88.
- 26) Sugarman, DB and Hotaling, G'T, 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rkers, In Pirog-Good and Stets(e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3-33, 1989, Praeger Pub.
- 27) Thompson, WE, Courtship violence : Toward a conceptual understanding, In Pirog-Good and Stets (e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1989, Praeger Pub.